

濟州道の 地域間 農家所得 隔差 要因에 관한 研究*

金 昌 中**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濟州道の 農家所得 水準과 構造 및 所得分布의 不均衡
- III.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와 構造
- IV.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要因 分析
- V. 要約과 結論

I. 問題의 提起

'60年代 이후 都市化·工業化·開放化로 表現되는 우리 社會의 産業社會化 過程은 濟州道의 農家經濟도 예외없이 資本主義的 市場經濟에의 轉입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濟州農家의 資源 配分과 農業生産組織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다. 濟州道 農業의 作付體系가 '60年代의 食糧作物 中心에서 현재의 果樹·菜蔬·特用作物 中心으로 變化한 점이 그 단적인 實證이다.

그렇다면 濟州道 農家의 資源配分과 農業生産 組織의 變化가 農家의 所得水準과 生活水準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왔으며 그 變化로 濟州道 農家의 福祉水準은 얼마나 向上되었을까? 이에 관한 公式的인 資料가 없기 때문에 計數的 確認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西歸浦의 몇 개 洞이 '70年代 이후 全國 最高의 農家所得을 보여주었다는 점, 農家의 離農現象이 全國에서 가장 적었다는 점, 감골農家戶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全國 單位農協 가운데 濟州道만이 모두

*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助敎授

黑字經營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는 濟州道の 農家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所得水準과 福祉水準을 享有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濟州道の 農家が 平均적으로 陸地部に 비해 높은 所得水準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都市化·工業化·開放化에 따른 濟州道の 地域別·農家階層別 所得水準과 그 構造의 變化에는 상당한 隔差가 存在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60年代에 高所得 作物로 부상한 柑橘이 西歸浦를 中心으로 한 高學歷의 大農에서 擴大栽培되기 시작하여 '70年代에 이르러 濟州道 全域의 거의 모든 農家階層으로 그 栽培熱이 擴散되어 왔다는 점, '70年代 후반의 農産物 輸入自由化 擴大措置에 따라 감귤 栽培의 限界地인 濟州市·東部·西部의 海岸地域에서 그동안 農家の 主要 所得作物이었던 油菜와 麥酒麥의 植付面積이 겨울 菜蔬類와 감자의 植付地로 전환되어 왔다는 점, '80年代 이후 高收益性 作物로 등장한 바나나의 栽培熱이 西歸浦地域에서 柑橘植付地를 잠식하며 擴散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社會의 產業社會化의 과정에서 濟州道 農家の 資源配分과 農業生産組織에 관한 意思決定 構造의 變化로 地域間·農家階層間 所得隔差는 어느 정도로 되었으며 앞으로 그 隔差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만약 현재 그 隔差가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濟州道の 地域間·階層間 所得不均衡을 초래하는 심각한 問題가 될 것이다. 이 점은 '86年 현재 제주도 전체 就業者의 58.2%가 1次産業 從事者이며, 全家口의 35%가 農家라는 사실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제주도의 地域間·農家階層間 所得水準과 所得 決定要因에 관한 公式資料나 研究結果가 全無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最近에 이르러 農家が 支配的인 東部와 西部 地域의 人口가 減少하고 있는 반면 濟州市와 西歸浦市의 人口는 증가하고 있어서 濟州道 社會의 都市化 現象에 따라 教育, 住宅 등의 면에서 不必要한 社會的 費用負擔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相對的 貧困感과 疎外意識이 造成되어 地域住民의 福祉水準을 저하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濟州道の 地域間·農家階層間 所得水準과 所得決定 要因에 관한 研究를 통하여 地域間 均衡開發計劃을 수립하고 地域間 農家所得의 衡平化를 위한 政策的 努力을 경주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課題로 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意識에 입각하여 本 研究에서는,

- 1) 제주도의 農家所得 水準과 그 構造 및 階層間 所得의 隔差와 不平等度를 밝히고,
- 2)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와 構造를 分析하여 主要 所得決定 要因을 추출하며,

3) 農家所得 變化에의 各 所得決定 要因의 影響력을 地域별로 파악함으로써 現 時點에서 地域間 農家所得 隔差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政策 變數의 우선순위를 提示코자 한다.

Ⅱ. 濟州道の 農家所得 水準과 構造 및 所得分布의 不均衡

1. 農家所得의 概念과 構成項目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公式 統計에 나타난 農家所得은 農家 家口員이 農家가 보유한 資源을 여러 經濟活動에 配分하여 1年동안에 얻어지는 所得에 移轉收入을 더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所得의 개념은 國民所得 推計上 個人所得 (PI-personal income)의 계산방법과 一致하는 것으로서 農家所得을 要素所得과 移轉收入의 합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나누어 農外所得을 農家所得에서 農業所得을 뺀 나머지로써 개념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所得의 지속적인 增大와 地域間, 階層間 農家所得의 衡平化가 政策的 關心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農家所得의 개념과 구분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農家の 經濟活動에서 비롯되지 않은 送金, 被贈 등의 移轉收入이 農家所得에 포함될 경우에 農家所得은 農家の 經濟活動 成果를 가늠하는 指標로서 부적합할 가능성이 커진다. 移轉收入이 農家所得에 포함되면 政策的인 측면에서 例로서 農家間 冠婚喪祭時의 相扶相助活動의 規模를 擴大하는 것이 農家所得 增大의 한가지 方案으로 提示되는 問題가 發生한다.

둘째, 政策的으로 農家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해 農外所得의 增大策을 모색할 때, 이는 주로 農家の 家族勞動力을 自營農業 이외의 部門에 配分하여 所得增大를 도모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慣行的 農外所得에는 自營農業 이외의 部門에서 家族 勞動力의 活用으로 얻어진 所得만이 아니라 財産所得과 移轉所得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慣行的 農外所得은 農家 家口員의 農外活動 成果를 정확히 나타내는 指標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農家所得에 관한 政策的 關心은 農家の 經濟活動 成果를 비교적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農家所得을 개념하고 區分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農家の 經濟活動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農家の 經濟活動은 產業的 性格에 따라 農業活動 (agricultural activity) 과 非 農業活動 (non-agricultural activity) 으로 구분되고, 農家資源의 雇傭處에 따라 農家內 活動 (on-farm activity) 과 農家外 活動 (off-farm activity) 으로 區分된다. 이러한 分區에 따라 農家の 經濟活動을 구체적으로 類型化하면 < 表 1 > 과 같다.

< 表 1 > 農家 經濟活動의 概念的 區分

經濟活動의 產業的 性格	經濟活動의 場所의 性格		
	農家內 活動	農家外 活動	
		勞動力	實物 및 貨幣資產
農業活動	○ 自營農業 (耕種, 果樹, 원예, 畜産, 양잠, 양봉 등)	○ 被傭農業勞動 및 農 業서비스	○ 農地 賃貸 ○ 農舍 賃貸 ○ 農機械 賃貸
非農業活動	○ 自營 農外事業 — 林業 및 水産業 — 家內工業 및 副業 — 農産加工 — 商業 및 서비스業	○ 農外就業 (一時的·季節的· 定期的인 工場, 會社, 公共機關 등에의 취 업)	○ 豫 金 ○ 貸 與 金 ○ 出 資 金

< 表 1 > 에서 農業活動은 農家內 自營農業 活動과 農家外 他家農業活動으로 구분되고 있다. 統計分類上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83年 이후 自營農業活動만을 農業活動으로 보고 있으며 日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臺灣의 경우는 自營農業活動만이 아니라 自營林業 및 自營水産業 活動까지 農業活動에 포함시키고 있다. 農家の 農業活動을 農業生産에 관한 農家の 意思決定에 따라 農家資源을 配分하는 活動이라 할 때, 우리나라와 日本처럼 自營農業活動만을 농업활동으로 한정지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정할 경우 農家の 農業活動의 結果인 農業所得은 農家の 農業生産에 대한 資源配分の 程度를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으며, 農業所得의 部門別 構成比는 農家가 與件變化에 따라 農業生産組織을 어떻게 變化시키는가 하는 情報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自營 農業活動만을 農業活動으로 한정할 경우 農外活動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經濟學者에 따라 農外活動을 自營 農業活動을 제외한 모든 農家活動으로 보기도 하고,¹⁾ 被傭農

1) Rohei Kada, 「Part-time Family Farming」, Tokyo, Japan, Center for Academic Publications, 1980.

業勞動과 農外就業活動만을 農外活動으로 概念하기도 한다.²⁾ 前者의 경우는 農家の 人的·物的인 모든 資源을 自營農業生産 이외에 配分하는 活動을 農外活動으로 보는 視角이며, 後者의 경우는 農家が 家族勞動力의 一部를 自營農業 以外에 配分하는 活動을 農外活動으로 보는 視角이다.

그런데 農家が 自營農業 生産活動 이외에 다른 生産的 活動을 하는 것은 1) 土地-勞動比 (land-labor ratio)의 不均衡에 따른 農家 家口員의 過剩 農業就業 緩和, 2) 農家經濟의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의 편입·통합에 따른 現金所得 增大의 필요성, 3) 農業生産의 季節性에 따른 農閑期 遊休勞動力의 生産的 活用, 4) 農業의 資本化 (機械化 등)에 따른 餘裕勞動時間의 활용, 5) 農家 家口員의 教育·연령·취향 등에 따른 個人的 選好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農家が 처해있는 경제적 환경에 따라 農外活動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農外活動은 農家が 家族勞動力의 一部를 自營農業活動 以外에 配分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農外活動은 農外事業活動과 農外就業活動 및 被傭農業活動을 포함하며 實物 및 金融資産의 貸與 또는 貸與 등과 관련된 活動은 별도의 活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農家所得의 증대 또는 地域間·階層間 農家所得의 衡平化라는 政策的 關心에서 볼 때 農家所得은 1年동안 農家資源의 配分活動-自營農業活動, 農外就業活動과 被傭農業活動 및 農外事業活動을 포함한 農外活動, 實物 및 金融資産의 貸與活動-에서 얻어지는 所得이라고 개념된다. 그리고 農家所得의 構成項目은 1) 自營農業活動의 결과인 農業所得, 2) 農外事業에서 비롯된 兼業所得과 被傭農業活動 및 農外就業活動에서 얻는 勞賃과 俸給을 합한 農外所得, 3) 實物 및 金融資産의 貸與로서 얻어지는 財産所得으로 區分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農家所得의 개념과 그 構成項目에 의해 分析할 것이다.

2. 農家所得의 實態와 構造

1) 資料의 性格

아직까지 濟州道の 農家所得에 관한 公式資料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情報를 얻기 위해

2) C. E. Bishop, 「Part-time Farming and the Low-Income Farm Problem」,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37, 1955, p.1429.

3) 崔洋夫外,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p.107.

서는 農家經濟에 대한 標本調査를 새롭게 실시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標本調査에는 상당한 經費와 時間의 制約이 뒤따른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부득이 1986年 8月에 「濟州道 農外所得 增大方案에 관한 研究」⁴⁾의 일환으로 本 研究者가 수집한 農家標本調査資料를 再分析하여 必要한 情報를 얻기로 하였다.

標本調査資料를 토대로 濟州道 農家の 所得實態와 그 構造를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限界가 있다. 우선은 調査標本이 母集團인 濟州道 全體農家를 代表할 수 있느냐에 그 限界가 있다. 分析對象이 된 標本農家는 177戶로 제주도 전체 農家の 0.42%에 불과하며, 戶當 平均 耕地規模는 3,270.8坪으로 '86年 濟州道 農家平均인 3,863.3坪보다 15.3% 적었다. 또한 規模別 標本農家の 分布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年 母集團의 規模別 分布에 비하여 中農層 比率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標本選定 과정에서 地域別·地帶別·農家階層別로 集落標本設計 (cluster sample design)를 통하여 標本을 추출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母集團에 관한 近似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고 본다.

<表2> 標本農家の 耕地 規模別 分布

단위 : 戶

구 분	규모별	0.5 ha 미 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 상	계
표 본 농 가		47 (26.6)	51 (28.8)	40 (22.6)	27 (15.2)	12 (6.8)	177 (100.0)
'86 제주도 전체 ¹⁾		14,194 (33.6)	12,794 (30.3)	8,075 (19.1)	4,122 (9.8)	3,032 (7.2)	42,217 (100.0)

주: ()내는 전체농가에 대한 比率임.
자료: 1)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그러나 本 研究結果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本分布가 母集團分布에 비해 약간 歪曲되었고, 標本農家와의 面接의 困難, 被調査者의 불성실한 情報提供 등으로 集計過程에서 상당수의 標本이 기각되었으므로⁵⁾ 集計에 포함된 農家들에 대한 일종의 事例分析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봄이 정확하다. 따라서 本 研究結果에 대한 해석은 絕對值에 대한 正確性 그 자체보다는 대체적인 水準이나 傾向에 대한 情報를 나타낸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地域別·階層別로 比較分析한 結果는 標本制約이 더욱 크기 때문에 絕對值보다는 相對的 水準이 보다 중

4) 金範國, 金昌中, 金炯吉, “濟州道 農外所得 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6.

5) 당초 조사표본은 270이었으나 集計에는 177호의 농가표본만이 이용되었다.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農家所得의 水準과 그 構造

標本農家 177戶의 調査分析結果에 의하면 1986年 濟州道の 平均 農家所得은 7,116.0 千 원으로 全國 平均인 4,789.1 千원⁶⁾보다 48.6% 더 많았다. 이러한 점은 濟州道の 農家が 陸地의 農家에 비하여 收益性이 큰 部門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經濟活動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濟州道 農家들이 현재로서는 平均적으로 陸地의 農家에 비하여 보다 많은 所得機會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濟州道 農家가 상대적으로 高收益의 自營農業活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標本農家の 平均 農業所得 構成比에 있어서 감귤이 54.1%, 바나나·파인애플·金柑·화훼·시설채소 등의 施設園藝가 16.6%, 축산이 11.6%, 식량작물이 7.7%, 채소류가 7.6%, 그리고 특용작물이 2.4%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뿐만 아니라 標本農家の 平均 耕地 面積中 감귤원이 42.3%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 農家들에 있어서 高收益性 農業活動의 機會가 아직도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濟州道 農家の 農外活動도 현재 陸地에 비하여 활발하고 그 機會도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4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海岸線이 바로 外洋에 접하여 漁港開發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農家の 小型漁船에 의한 漁撈作業과 貝類·海藻類의 채취작업 등 水産部門의 兼業機會가 많다.

둘째, 濟州道の 農村은 육지에 비하여 대규모의 취락형태이며, 農業生産의 商業化, 專門化 및 資本化가 成長農産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兼業으로서 農家の 商工部門 活動機會가 상대적으로 많다.

셋째, 고구마·유채·감귤·해조류 등 加工原料農水産物의 生産이 과거부터 활발하여 原料産地인 農村을 中心으로 加工工場이 立地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農水産物의 수집·선별·출하·

6) 농수산 통계연보의 농가소득은 5,995.0 千원이나 이는 농가 총소득이며 여기에서 이전수입, 제품수입 및 가사 잡수입의 합계인 1,205.9 千원을 공제하여 농가소득을 4,789.1 千원으로 환산한 것이다.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87, p.117.

7) 1986年 全國 平均 農家の 農業粗收入 구성비는 식량작물 55.5%, 축산 17.6%, 채소 13.9%, 과수 6.2%, 특용작물 5.2%로서 成長農産物 中心의 濟州道 農業生産組織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1987), 1987, p.119)

가공과 관련된 農外活動 機會도 상대적으로 많다.

네째, 그동안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으로 제주도 전역이 1日 通勤圈으로 변화되었고, 아직도 自營農業機會가 많기 때문에 육지에 비하여 離村脫農의 유인보다 在村脫農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이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 農家의 源泉別 所得水準을 全國 平均보다 모두 높게 하였고, 農家所得中 農外所得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表3> 濟州道, 韓國, 日本, 臺灣의 農家所得과 그 構造

지역	항 목 단 위	농업소득	농 외 소 득			재산소득	농가소득	이전수입 및 잡 수입	농 가 총 소득
			겸업소득	노임 및 봉 급	소 계				
제주도 ¹⁾ (1986)	천원	5,155.4 (72.4)	568.3 (8.0)	1,278.4 (18.0)	1,846.7 (26.0)	113.9 (1.6)	7,116.0 (100.0) < 93.8>	472.3 < 6.2>	7,588.3 < 100.0>
한국 ²⁾ (1986)	"	3,677.3 (76.8)	274.1 (5.7)	852.2 (17.8)	1,126.3 (23.5)	-14.5 (-0.3)	4,789.1 (100.0) < 79.9>	1,205.9 < 20.1>	5,995.0 < 100.0>
日本 ³⁾ (1984)	千圓	1,065.3 (19.9)	326.1 (6.1)	3,699.2 (69.0)	4,025.3 (75.1)	270.2 (5.0)	5,360.8 (100.0) < 79.4>	1,389.1 < 20.6>	6,749.9 < 100.0>
臺灣 ⁴⁾ (1984)	N.T. \$	81,137 (34.6)	19,157 (8.2)	108,788 (46.3)	127,945 (54.3)	25,633 (10.9)	234,715 (100.0) < 91.6>	21,546 < 8.4>	256,262 < 100.0>

주 : 1.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2. < >내는 농가 총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자료 : 1) 표본조사 결과임.
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87.
3)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課, 「農家經濟調查報告」, 1986.
4) 臺灣省 主計處, 「家庭收支調查」, 1986.

그러나 農家所得에 移轉收入을 합한 農家總所得은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가 全國 平均보다 26.6% 더 높은 水準이지만 그 隔差는 農家所得의 경우보다 적다. 더욱이 제주도 標本農家의 平均 家口員數는 5.66명으로 全國 標本農家 平均인 4.52人보다 많기 때문에

제주도 농가의 1인당 所得인 1,340.5천원은 全國 平均인 1,326.3천원 거의 비슷한 水準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絕對所得에서 본 濟州道 農家の 1人當 福祉水準은 全國平均農家에 비하여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86年 현재 제주도 農家の 1人當 所得은 濟州道の 1人當 GRP인 1,901천원⁸⁾의 70.5% 水準으로 全國平均農家の 1人當 所得이 1人當 GNP인 2,017천원⁹⁾의 65.8% 水準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相對所得面에서 본 濟州道 農家の 福祉水準은 全國平均農家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標本調査結果에 의한 제주도의 農家所得構造를 戶當 耕地面積이 비슷한 日本 및 臺灣과 比較해 보면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경우 農業所得에 심히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이나 臺灣은 農家所得의 農外所得 依存度가 매우 높으며, 특히 農外就業活動에서 얻고 있는 勞賃과 俸給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戶當 耕地面積이 비슷하나 經濟發展水準이 앞서 있는 日本과 臺灣의 이러한 農家所得構造는 앞으로 濟州道 農家の 所得增大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農外就業機會를 개발해야함을 말해준다. 農家の 通勤圈內에 農外就業機會가 많아지면 적은 耕地規模의 활용에 의한 農業所得增大의 限界를 農家 家口員들의 農外就業에 의한 農外所得增大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耕地規模 階層別 農家所得의 水準과 構造

전통적으로 農家階層은 經營耕地의 規模에 의해 구분하여 왔다. 그 區分에 있어서 韓國, 日本 및 臺灣이 공히 0.5 ha의 階級區間(class interval)을 사용하여 왔다. 本 研究에서도 전 이상 이러한 전통을 따라 1.0 ~ 1.5 ha의 基幹農을 中心으로 0.5 ha 미만 계층을 零細農, 0.5 ~ 1.0 ha의 계층을 小農, 1.5 ~ 2.0 ha의 계층을 中農 그리고 2.0 ha 이상의 계층을 大農으로 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標本調査結果에 의한 '86年 規模別 제주도의 農家所得水準은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農家階層에서 全國平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階層別로도 제주도의 농가가 육지의 농가에 비하여 보다 활발히 經濟活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農家經濟活動部門別로 보면 제주도의 경우 中·大農層의 農外活動指向의 性格이 全國平均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農外所得依存度는 零細農層만이 6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다른 階層은 20 ~ 26% 수준으로 비슷하여 全國平均이 上位階層일수록 낮아지는 점과 대조적이다.

8) 제주도, 「主要行政總覽」, 1988.

9) 경제기획원, 「主要經濟指標」, 1987.

〈表4〉 제주도, 한국, 日本의 經營耕地 階層別 農家所得과 그 構造 比較

지역	항 목		농 외 소 득		재산소득	농가소득	이전수입 및 잡수입	농 가 총 소득	
	규모별	농업소득	겸업소득	노임 및 봉급					체
제 주 도 ('86)	0.5 ha 미만	1,559.7 (36.5)	578.6 (13.5)	2,073.8 (48.5)	2,652.4 (62.0)	65.3 (1.5)	4,277.4 (100.0) <97.2>	123.7 <2.8>	4,401.1 <100.0>
	0.5 ~ 1.0 ha	4,337.4 (72.8)	198.0 (3.3)	1,350.8 (22.7)	1,548.8 (26.0)	74.7 (1.2)	5,960.9 (100.0) <92.0>	520.4 <8.0>	6,481.2 <100.0>
	1.0 ~ 1.5 ha	6,263.8 (77.1)	606.4 (7.5)	1,098.4 (13.5)	1,704.8 (21.0)	153.7 (1.9)	8,122.3 (100.0) <93.1>	601.1 <6.9>	8,723.4 <100.0>
	1.5 ~ 2.0 ha	6,845.6 (76.8)	1,254.5 (14.1)	677.5 (7.6)	1,932.0 (21.7)	130.5 (1.5)	8,908.1 (100.0) <95.4>	429.6 <4.6>	9,337.8 <100.0>
한 ¹⁾	2.0 ha 이상	7,295.7 (77.9)	501.1 (5.3)	1,400.7 (14)	1,901.8 (20.3)	163.8 (1.8)	9,361.3 (100.0) <94.9>	501.4 <5.1>	9,862.8 <100.0>
	0.5 ha 미만	1,155.3 (36.6)	558.7 (17.7)	1,293.5 (41.0)	1,852.2 (58.7)	148.5 (4.7)	3,156.0 (100.0) <72.6>	1,192.3 <27.4>	4,348.3 <100.0>
	0.5 ~ 1.0 ha	2,650.8 (65.1)	298.3 (7.3)	1,070.5 (26.3)	1,368.8 (33.6)	55.1 (1.3)	4,074.7 (100.0) <77.9>	1,157.8 <22.1>	5,232.5 <100.0>

단위 (제주도, 한국 : 천원
日本 : 千円)

국 ('86)	1.0 ~ 1.5 ha	3,816.9 (83.0)	188.3 (4.1)	698.2 (15.2)	886.5 (19.3)	-103.3 (-2.3)	4,600.1 (100.0) <78.9>	1,232.5 <21.1>	5,832.6 <100.0>
	1.5 ~ 2.0 ha	5,231.1 (89.4)	129.5 (2.2)	548.7 (9.4)	678.2 (11.6)	-60.3 (-1.0)	5,849.0 (100.0) <82.6>	1,233.0 <17.4>	7,082.0 <100.0>
	2.0 ha 이 상	7,527.6 (93.7)	161.5 (2.0)	467.3 (5.8)	628.8 (7.8)	-121.6 (-1.5)	8,034.9 (100.0) <87.0>	1,197.8 <13.0>	9,232.6 <100.0>
일 ²⁾ 본 ('84)	0.5 ha 미 만	124.5 (2.4)	330.0 (6.3)	4,449.3 (84.5)	4,779.3 (90.8)	359.1 (6.8)	5,262.9 (100.0) <76.9>	1,583.1 <23.1>	6,846.0 <100.0>
	0.5 ~ 1.0 ha	598.1 (11.1)	347.5 (6.5)	4,120.9 (76.6)	4,468.4 (83.1)	312.6 (5.8)	5,379.1 (100.0) <79.1>	1,422.4 <20.9>	6,801.5 <100.0>
	1.0 ~ 1.5 ha	1,265.0 (24.3)	308.7 (5.9)	3,344.1 (64.1)	3,652.8 (70.0)	295.3 (5.7)	5,213.1 (100.0) <81.4>	1,194.9 <18.6>	6,408.0 <100.0>
	1.5 ~ 2.0 ha	2,141.7 (38.8)	250.5 (4.5)	2,860.1 (51.9)	3,110.6 (56.4)	261.8 (4.8)	5,514.1 (100.0) <83.1>	1,120.1 <16.9>	6,634.0 <100.0>
	2.0 ha 이 상	3,453.9 (58.9)	338.6 (5.8)	1,917.1 (32.7)	2,255.7 (38.5)	152.4 (2.6)	5,862.0 (100.0) <83.0>	1,196.5 <17.0>	7,058.5 <100.0>

주: 1. ()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2. < > 내는 농가 총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자료: 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7.
2)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課, 農家經濟調査報告, 1986.

階層別 農家所得構造를 日本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우 모든 階層의 農外所得依存的 性格이 약하다. 日本 零細農層의 農外所得依存度는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上位階層일수록 그것이 낮아지고 있지만 大農層에서도 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통된 점은 下位階層일수록 農外活動指向的 性格이 강하다는 점을 <表 4>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下位階層일수록 農業生産性 向上과 農業所得 増大의 制約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農家の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의 편입·통합이 가속화되어 現金所得 増大의 욕구가 강하게 되고, 經濟發展에 따라 農外就業活動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 下位階層일수록 農外活動指向的 性格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階層間 農家所得 隔差를 완화하는 데 下位階層의 農外活動 強化가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日本의 경우 經濟發展과 함께 상대적으로 賃金水準이 낮은 農村地域으로 農外 就業機會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下位階層의 農外所得이 현저히 증가하여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階層間 所得隔差가 무시할 정도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經濟發展水準이 상대적으로 落後하여 中·大農層에 비해 零細小農의 農外活動機會가 다른 地域이나 國家보다 적기 때문에 農家階層間 所得不均衡度가 가장 심하다. 이는 제주도의 零細農層 農家所得이 中農層의 48.0% 수준으로 全國平均인 54.0%나 日本의 95.4%보다 낮은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零細小農層의 農外活動機會를 창출함은 장기적으로 農家階層間 所得隔差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 政策課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農家所得의 不均衡度

같은 經營耕地를 가진 農家間에도 農業生産의 資本化·專門化·商品化和 農外活動의 정도에 따라 所得隔差는 다양할 수 있다. 예로서 1ha의 耕地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는 上位所得階層에 속할 수 있고, 耕種作物만 재배하는 농가는 下位所得階層에 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營耕地 階層別 平均所得의 比較에 의한 所得不均衡度의 파악은 農家間 所得不均衡 정도에 관한 불명료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全體 農家間의 所得不均衡度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分析이 要請된다.

所得分布의 不均衡을 測定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¹⁰⁾ 여기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10) A. B. Atkinson,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지니」集中率 (Gini concentration ratio)에 의해 파악코자 한다. 「지니」集中率은 「로렌스」곡선 (Lorenz curve)과 完全均衡所得分布線 사이의 面積, 즉 <그림 1>의 빗금친 面積을 ΔOXA 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지니」集中率이 크면 所得分布의 不均衡度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로렌스」曲線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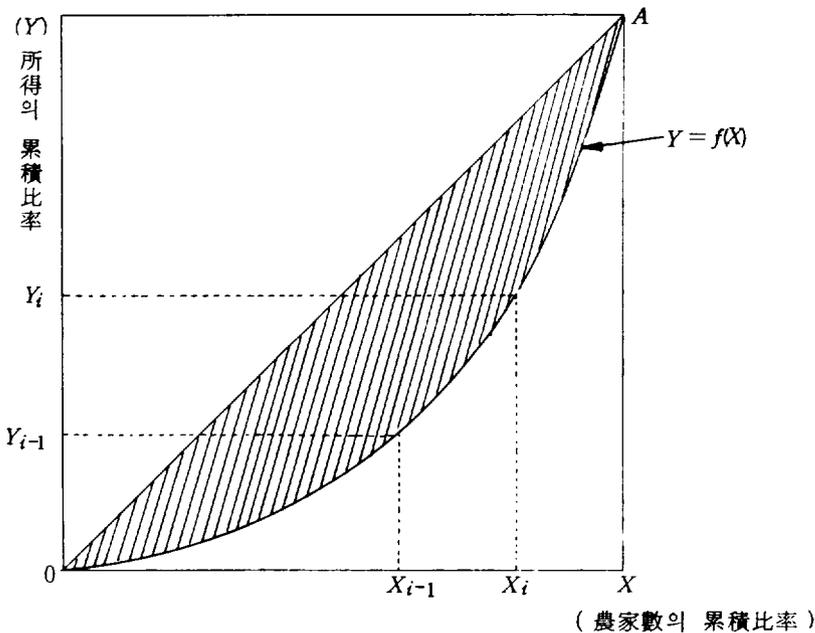
$$Y = f(X) \dots\dots\dots (1)$$

Y : 소득의 異積比率

X : 農家數의 異積比率

라고 하면 <그림 1>의 대각선 아래쪽의 面積은 0.5 이고, 대각선과 「로렌스」曲線 사이의 面積은 0.5에서 曲線 아래쪽의 面積을 뺀 것과 같으므로 「지니」集中率은 다음과 같다. 즉,

<그림 1> 「로렌스」曲線



$$G = \frac{0.5 - \int_0^1 f(X) dX}{0.5} = 1 - 2\int_0^1 f(X) dX \dots\dots\dots (2)$$

이다. 그런데 $\int_0^1 f(X) dX$ 는 $A_i = (X_i - X_{i-1})(Y_{i-1} + Y_i)/2$ 라 할 때, $\int_0^1 f(X) dX \doteq \sum A_i$ 로 代置할 수 있다. 따라서 實際의 「지니」集中率은,

$$G^* = 1 - 2\sum A_j \dots\dots\dots (3-a)$$

$$G^* = \sum X_{j-1}Y_j - \sum X_jY_{j-1} \dots\dots\dots (3-b)$$

즉 (3-b) 式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¹¹⁾

(3-b) 式에 의해 調査農家 177 戶의 所得分布에 대한 「지니」 集中率을 계산한 결과는 0.4588 로 나타났다. 이는 '85 年 全國農村의 所得分布에 대한 「지니」 集中率인 0.3199¹²⁾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 數値를 제주도의 代表值로 본다면 제주도 農家所得分布의 不均衡度는 우리나라의 다른 農村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農家所得分布의 不均衡度는 十分位分配率에서도 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所得占有率과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所得占有率을 대비시킨 十分位分配率은 調査農家에 대한 분석결과가 12.42/50.29 로 나타나 '85 年 全國農村에 대한 분석결과인 17.48/42.19¹³⁾보다 적기 때문이다.

<表5>는 최상위 20%, 中位 40% 및 최하위 40% 所得階層의 地域別 農家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最上位 20% 所得階層의 약 69.4%는 서귀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最下位

<表5> 標本農家 177 戶의 所得階層別 地域分布

단위: 戶

所得계층	지역	제주시	서귀포	한림	성산포	계
최상위 20% 소득계층		4 (11.1)	25 (69.4)	2 (5.6)	5 (13.9)	36 (100.0)
中位 40% 소득계층		23 (32.4)	17 (23.9)	19 (26.8)	12 (16.9)	71 (100.0)
최하위 40% 소득계층		24 (34.3)	4 (5.7)	22 (31.4)	20 (28.6)	70 (100.0)
계		51 (28.8)	46 (26.0)	43 (24.3)	37 (20.9)	177 (100.0)

주: () 내는 각 所得階層 農家數에 대한 백분비임.

40% 所得階層의 약 94.3%는 제주시, 한림 및 성산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表5>

11) 姜奉淳, 文人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한국개발연구원, 1977, p.19~20.

12)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p.80.

13)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p.80.

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農家所得分布의 심한 不均衡이 地域的인 差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하겠다.

Ⅲ.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와 構造

제주도는 四面環海의 孤島인데다 中央에 1,950 m의 한라산이 솟아있기 때문에 山北(제주시 지역), 山南(서귀포시 지역), 山西(한림 지역), 山東(성산포 지역)에 따라 氣象條件이 다르다. 예로서 여름의 日照時間은 山北인 제주시 지역이 가장 긴 데 반해 겨울의 日照時間은 山南인 서귀포 지역이 가장 길다. 또한 제주도의 土壤條件은 대부분 火山灰土로 排水가 양호하나 耕地의 土層은 개략적으로 볼 때 제주시와 한림 지역은 40~50 cm, 성산포 지역은 20~30 cm 그리고 서귀포 지역은 10~20 c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¹⁴⁾ 따라서 제주도의 地域間 自然環境的 條件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自然·氣象的 條件만이 아니라 人文·社會的 與件도 地域間에 差異가 있다. 제주도 行政의 中心地인 제주시 地域의 人口密度가 '86年 현재 서귀포 지역의 2.6倍로 가장 조밀하고, 성산포 지역은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人口疎住地域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주도의 지역간 人文·社會的 與件的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이며 인문적인 與件的 地域間 差異는 住民生活 뿐만 아니라 地域農家の 經濟活動에 관한 意思決定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地域間 農家所得水準과 그 構造를 다르게 할 것이다.

1. 地域間 農業所得 隔差와 構造

與件的 차이에 따른 濟州道 農家の 地域的 經濟活動의 차이는 農業生産活動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標本調査結果에 의하면 서귀포 지역의 農家は 經營耕地의 약 98.1%를 果樹園으로 이용하여 果樹 위주의 專門化된 農業生産活動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地域은 耕種·菜蔬·果樹·畜産의 多角經營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畜産部門은 耕地面積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總換算植付面積¹⁵⁾에서 各 農業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

14) 제주도, 「濟州道誌(下)」, 1982, p.63~65.

15) 畜産부분의 面積換算은 농가의 年初保有動物評價額을 제주도의 平均地價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지역은 食糧作物, 柑橘, 菜蔬類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림지역은 食糧作物, 菜蔬類, 特用作物의 順이며 성산포 지역은 食糧作物, 特用作物, 柑橘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多角經營을 행하는 제주시, 한림 및 성산포 지역의 農家도 作目選擇에 관한 意思決定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比較優位作目인 겨울채소, 감귤, 시설원예 및 축산부문의 比重을 통해 본 農家の 商業的 營農活動은 서귀포 지역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제주시와 한림 지역이며 성산포 지역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地域間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의 차이로 말미암아 農家の 農業所得 水準과 構造에 있어서 地域間 隔差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表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의 정도가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서귀포 지역의 農家は 農業所得이 平均 11,531천원으로 제

<表6> 제주도 農家の 地域別 總換算植付面積과 作目別 構成

— 177 호 농가 조사결과 (1986) —

단위: 평

농업부문 지역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 소 류	감 귤	시설원예	축 산	총 환 산 식부면적
제주시 지역	2,209.0 (49.5)	366.3 (8.2)	706.4 (15.8)	1,002.3 (22.4)	30.4 (0.7)	151.3 (3.4)	4,465.0 (100.0)
서귀포 지역	—	—	—	2,659.8 (92.8)	100.0 (3.5)	107.8 (3.7)	2,867.6 (100.0)
한 림 지역	2,836.9 (56.0)	711.6 (14.1)	795.3 (15.7)	574.4 (11.3)	—	147.3 (2.9)	5,065.5 (100.0)
성산포 지역	2,666.2 (40.6)	2,283.6 (34.8)	410.8 (6.3)	1,145.9 (17.4)	—	58.8 (0.9)	6,565.3 (100.0)

주: () 내는 총환산 식부면적에 대한 백분비임.

주도 평균인 5,155천원보다 무려 123.7% 높은 수준이며, 그 構造面에서도 감귤이 68.0%, 시설원예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화훼임)가 27.3% 그리고 畜産 (주로 양봉임)이 4.7%로서 다른 地域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地域 農家の 農業所得 水準도 제주도 比較優位作目に 관한 地域間 特化的 정도에 따라 제주시, 한림 그리고 성산포 지역의 順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構造도 차이가 있음을 <表7>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農家所得의 增大와 所得不均衡의 완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比較優位作目を 中心으로 한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를 촉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表7〉 지역별 農業所得의 作目別 構成

— 177호 조사 결과(1986) —

단위: 천원

농업부문 지역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류	감 귤	시설원예	축 산	계
제주시 지역	445.2 (13.6)	161.5 (4.9)	539.3 (16.4)	1,246.1 (38.0)	133.8 (4.1)	756.4 (23.0)	3,282.3 (100.0)
서귀포 지역	-	-	-	7,838.6 (68.0)	3,153.0 (27.3)	539.2 (4.7)	11,530.8 (100.0)
한림 지역	661.6 (23.2)	155.0 (5.4)	744.7 (26.1)	555.4 (19.5)	-	736.6 (25.8)	2,853.3 (100.0)
성산포 지역	504.7 (20.3)	200.5 (8.0)	262.7 (10.6)	1,225.1 (49.3)	-	293.8 (11.8)	2,486.8 (100.0)

주: () 내는 농업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2. 地域間 農外所得의 隔差와 構造

與件에 따른 農業生産組織과 農外活動機會의 地域間 差異는 農家の 農外活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外活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시와 서귀포의 都市近郊地域에서는 調査農家の 50% 이상이 農外事業과 農外就業 活動에 참여하

〈表8〉 지역별로 본 분야별 농외활동 농가

— 제주도 177호 조사결과(1986) —

단위: 호

구 분 지역	조 사 농 가 수	농외활동 농 가 수	농 외 사 업 활 동 농 가				농외취업활동농가	
			수 산업	농 서비스	농산가공	상공업	임 시 직	상 용 직
제주시 지역	51	27 (100.0)	3 (11.1)	7 (25.9)	2 (7.4)	1 (3.7)	10 (37.0)	18 (66.7)
서귀포 지역	46	25 (100.0)	-	-	-	4 (16.0)	3 (12.0)	19 (76.0)
한림 지역	43	16 (100.0)	4 (25.0)	2 (12.5)	-	1 (6.3)	6 (37.5)	10 (62.5)
성산포 지역	37	17 (100.0)	6 (35.3)	-	-	3 (17.6)	2 (11.8)	9 (52.9)

주: 1. () 내는 농외활동 농가에 대한 백분비임.
2. 동일농가가 2개 이상의 농외활동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내의 합은 100을 초과함.

고 있다. 그렇지만 農業生産組織이 高收益性部門으로 專門化된 서귀포 地域의 農家들은 農業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就業狀態가 安定的이며 높은 賃金を 보장하는 常傭職의 農外就業活動이나 상대적으로 高所得을 보장하는 商工業 분야의 兼業活動이 集中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農業所得이 낙후된 제주시 地域의 農家들은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臨時職의 農外就業活動과 水産業, 農業서비스 등 傳統의 兼業活動을 상대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다. 한림과 성산포 地域의 農家들은 多角營農을 행하고 있고 農外活動機會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農外活動에의 參與도가 낮으며, 參與農家라 하더라도 주로 傳統의 兼業部門인 水産業 활동과 常傭職의 農外就業活動에 集中하고 있다.

地域間 農外事業活動 분야와 農外就業狀態의 差異는 農外所得 水準과 構造의 隔差를 조성한다. 그러나 農外活動으로 얻어지는 農外所得은 個別農家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農外活動 參與農家 比率이 큰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平均 農外所得水準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個別農家の 農外事業 規模나 農外就業의 상태 및 賃金水準도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農外活動分野別 農家分布와 農外所得構造 사이에도 相關性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表9>를 통하여 알 수 있다.

<表9> 地域別 農外所得의 源泉別 構成

— 177호 조사 결과(1986) —

단위 : 천원

원천 지역	검 업 소 득				농 외 취업 소득			피 용 농 업 노 임	합 계	
	수산업	농 산 가 공	상공업	기 타	계	노 임	급 료			계
제주시 지역	136.1 (9.0)	154.1 (10.2)	35.3 (2.3)	49.9 (3.3)	375.4 (24.8)	137.0 (9.1)	961.2 (63.6)	1,098.1 (72.7)	38.2 (2.5)	1,511.7 (100.0)
서귀포 지역	—	—	287.0 (14.1)	3.1 (0.1)	290.1 (14.2)	37.1 (2.0)	1,700.1 (83.5)	1,737.2 (85.5)	9.6 (0.3)	2,036.9 (100.0)
한 림 지역	213.5 (10.5)	—	27.9 (1.3)	34.4 (1.7)	275.8 (13.5)	99.1 (4.9)	988.4 (48.5)	1,087.5 (53.4)	41.0 (2.1)	1,404.3 (100.0)
성산포 지역	507.8 (19.6)	—	1,011.9 (39.2)	—	1,519.7 (58.8)	18.7 (0.7)	1,003.8 (38.8)	1,022.5 (39.5)	43.6 (1.7)	2,585.8 (100.0)

주 : () 내는 농외소득 합계에 대한 백분비임.

<表9>를 보면 상대적으로 農外活動參與農家가 적은 성산포 地域의 戶當平均 農外所得水準이 가장 높고 構造面에서는 農外事業 依存的이다. 이는 이 地域의 農外事業參與農家들이 다른 地域에 비해 규모가 큰 事業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 地域의 農外活動

參與農家の 비율은 비슷하지만 제주시 지역의 農家들은 傳統的인 農外事業에 주로 참여하고, 農外就業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低賃金이며 臨時職인 불안정한 雇傭이 많기 때문에 戶當平均 農外所得水準이 서귀포 지역의 74.2%에 불과하고 있다. 한림 지역은 農外活動參與農家の 비율이 가장 적고, 農外事業도 규모가 적은 傳統的 事業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戶當平均 農外所得水準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3. 地域別 農家所得의 隔差와 決定要因

農家所得은 農家の 農業生産活動과 家口員의 農外活動으로부터 주로 얻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地域別 農業活動과 農外活動의 結果를 종합해 보면 <表 10>과 같다.

<表 10> 地域別 農家所得의 項目別 構成

— 177호 조사결과(1986) —

단위 : 천원

항 목 지 역	농업소득	농 외 소 득			재산소득	농가소득	이전수입 및 잡수입	농 가 총소득
		겸업소득	노임 및 봉급	계				
제주시 지역	3,282.3 (67.5)	375.4 (7.7)	1,136.3 (23.4)	1,511.7 (30.1)	66.1 (1.4)	4,860.2 (100.0)	329.9	5,190.1
서귀포 지역	11,530.8 (84.1)	290.1 (2.1)	1,746.8 (12.7)	2,036.9 (14.8)	153.9 (1.1)	13,721.6 (100.0)	445.7	14,167.3
한림 지역	2,853.3 (64.7)	275.8 (6.2)	1,128.5 (25.6)	1,404.3 (31.8)	154.1 (3.5)	4,411.7 (100.0)	657.7	5,069.4
성산포 지역	2,486.8 (48.2)	1,519.7 (29.5)	1,066.1 (20.7)	2,585.8 (50.2)	83.1 (1.6)	5,155.6 (100.0)	486.2	5,641.8
평 균	5,155.4 (72.4)	568.3 (8.0)	1,278.4 (18.0)	1,846.7 (20.0)	113.9 (1.6)	7,116.0 (100.0)	472.3	7,588.3

주 :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백분비임.

<表 10>을 보면 서귀포 지역의 농가들이 平均적으로 가장 높은 所得을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산포, 제주시, 그리고 한림의 순으로 낮은 所得을 얻고 있다. 所得構造面에서 보면 서귀포 지역의 農家들은 農業所得 依存的인 데 비해 성산포 지역의 농가들은 農外所得 依存的이며 제주시와 한림 지역의 농가들은 農外活動의 사후적 평가기준인 農外所得率이 약 30% 수준이다.

서귀포 지역의 농가들이 平均적으로 높은 所得을 얻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농가들에 비하

여 1) 제주도의 比較優位作目인 감귤, 시설원예를 中心으로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 水準이 월등히 높다는 점, 2) 兼業活動이 近代的인 商工業活動에 집중되고 대부분의 農外就業活動이 常時雇傭으로 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성산포 지역의 농가들이 제주시와 한림 지역의 농가들에 비하여 平均農家所得이 높은 것은 1) 다른 지역에 비해 人口疏住地域이며 海岸線이 길기 때문에 水産業部門의 兼業活動規模가 크고, 2) 水産物과 特用作物 生産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이들을 이용한 農水産物加工分野의 兼業活動과 農外就業活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한다.

이러한 점은 1) 제주도의 比較優位作目を 中心으로 한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 정도, 2) 兼業活動의 近代的 部門에의 集中度와 農外就業의 常時雇傭化 정도가 地域別 戶當平均 農家所得 水準과 構造의 주요 決定要因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前者는 總換算植付面積에 대한 比較優位作目 植付面積의 比率인 「比較優位作目化率」로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後者는 農外活動의 事後的 評價基準인 農外所得率로서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比較優位作目化率」과 農外所得率은 제주도 農家所得決定의 重要要因이라 할 수 있다.

地域別 戶當平均 農家所得의 수준과 構造는 集計에 포함된 個別農家の 經濟活動 結果를 합산하여 平均한 것이므로 個別農家の 經濟活動을 制約하는 經營耕地의 規模, 經營主의 能力 등도 제주도 農家所得決定의 重要要因이 된다. 이러한 점은 「比較優位作目化率」과 農外所得率이 같은 農家들이라 하더라도 經營耕地規模가 크거나 또는 經營主의 能力이 높은 農家は 더 큰 所得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要因 分析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要因은 農家所得 決定要因들이 各 地域의 農家所得에 어떤 정도로 影響력을 갖는가를 比較함으로써 分析可能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比較優位作目化率」이 高所得 地域에서보다 低所得 地域에서 農家所得增大에 더 큰 寄與를 한다면 이것은 地域間 農家所得隔差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低所得 地域의 農家들이 제주도의 比較優位作目인 감귤, 시설원예, 겨울채소 등의 植付面積을 확대하는 方向으로 農業生産構造를 빠르게 변경시킨다면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는 점차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地域間 農家所得의 隔差와 관련된 諸問題를 해소하려는 政策當局은 低所得 地域의 農家들이 「比較優位作目化」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隘路要因을 타개하는 方向에서 政策課題를 도출하고 支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서로 다른 4개 地域의 農家所得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農家所得決定의 重要 要因인 耕地面積, 農外所得率, 比較優位作物化率 및 經營主의 能力이 어느 정도 影響력을 갖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多重回歸分析模型을 설정하였다. 16) 즉,

$$Y_i = A_i + B_{1i}X_{1i} + B_{2i}X_{2i} + B_{3i}X_{3i} + B_{4i}X_{4i}, \quad i = 1, 2, 3, 4 \dots\dots\dots(4)$$

이다. 여기에서

- Y_i : i 지역의 農家所得 (천원)
- X_{1i} : i 지역 농가의 經營耕地面積 (평)
- X_{2i} : i 지역 농가의 農外所得率 (%)
- X_{3i} : i 지역 농가의 比較優位作物化率 (%)
- X_{4i} : i 지역 농가 경영주의 能力 17)
- A_i : i 지역 회귀방정식의 常數
- $B_{1i}, B_{2i}, B_{3i}, B_{4i}$: i 지역의 각 독립변수에 대한 回歸係數

를 의미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partial Y_i / \partial X_{1i} = B_{1i}$ 로서 X_{1i} 만이 1單位 變할 때 Y_i 의 變化는 B_{1i} 로 계측된다. 즉, i 지역 농가의 경영경지면적만이 1평 증가할 때 i 지역 농가의 소득은 B_{1i} 천원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B_{2i}, B_{3i}, B_{4i} 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각 회귀계수는 각 소득결정요인이 해당 지역의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影響력을 갖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4)식의 상수와 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사용한 農家標本 橫斷資料 (cross-section data)를 이용하였다. 그것은 (4)식을 유도할 시계열자료 (time-series data)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또한 (4)식은 多重回歸模型이므로 부득이 시카고大學 컴퓨터 센터가 개발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回歸係數들을 推定키로 하였다. 이 SPSS는 從屬變數에 대한 各 獨立變數의 相對的 寄與度를 가능하는 標準回歸係數 18) (standardized

16) 이와 유사한 분석방법은 M. S. Ahluwalia, "Income Inequality: some Dimensions of the Problem," [Redistribution with Growth], World Bank, 1974, p.27-28에서도 볼 수 있다.

17) 경영주의 능력을 변수화함에 있어서 연령이 20~40세이고 학력이 중졸 이상인 경우 3으로 하고,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또는 40세 이상이며 학력이 중졸 이상인 경우와 연령이 20~40세이고 학력이 중졸 미만인 경우를 2로 하였으며 그외의 경우는 1로 정하였다.

18) 표준회귀계수는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을 때 어떤 독립변수의 1標準偏差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몇 標準偏差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독립변수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회귀계수에 근거하여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標準回歸係數의 검토로써 해결할 수 있다 (Norman H. Nie, et.al., SPSS, McGraw-Hill, 1975, p.332)

regression coefficient)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農家標本資料에 의해 확장한 각 농가별 농가소득과 소득결 정요인의 標斷資料를 SPSS에 의해 컴퓨터 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시 지역

$$Y_1 = -2882.33 + 1.0807 X_{11} + 45.2013 X_{21} + 36.3287 X_{31} + 894.44 X_{41} \dots\dots\dots (5)$$

[0.5058]	[0.4721]	[0.4079]	[0.2115]
(4.0555)	(3.8564)	(3.2155)	(1.8618)
$d.f. = 46$	$R^2 = 0.5061$	$F = 13.2892$	

2) 서귀포 지역

$$Y_2 = -24502.38 + 2.7623 X_{12} + 43.6925 X_{22} + 268.6000 X_{32} + 728.73 X_{42} \dots\dots\dots (6)$$

[0.4416]	[0.0913]	[0.5885]	[0.0515]
(3.7308)	(0.7627)	(4.9177)	(0.4296)
$d.f. = 41$	$R^2 = 0.4616$	$F = 8.7872$	

3) 한림 지역

$$Y_3 = -338.88 + 0.6078 X_{13} + 50.1299 X_{23} + 23.6242 X_{33} + 359.50 X_{43} \dots\dots\dots (7)$$

[0.4948]	[0.5316]	[0.2704]	[0.0891]
(4.1509)	(4.3705)	(2.4068)	(0.7575)
$d.f. = 38$	$R^2 = 0.5735$	$F = 12.7746$	

4) 성산포 지역

$$Y_4 = -3719.12 + 0.7689 X_{14} + 112.3150 X_{24} + 30.1592 X_{34} + 995.06 X_{44} \dots\dots\dots (8)$$

[0.3031]	[0.6596]	[0.1477]	[0.1213]
(2.3562)	(5.3062)	(1.0733)	(0.8559)
$d.f. = 32$	$R^2 = 0.5599$	$F = 10.1757$	

[] 内는 標準回歸係數임
 () 内는 t-value 임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1) 模型에 포함된 耕地面積 (X₁), 農外所得率 (X₂), 比較優位作目化率 (X₃) 및 經營主의

能力(X_4)에 의하여 各 地域에서 관찰된 個別農家の 所得變動을 약 50%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5)~(8)式의 決定係數인 R^2 의 값이 대략 0.5의 수준인 점에서 확인된다.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의 農家所得 變動은 우리가 先驗的으로 확인할 수 있는 潛在的 說明變數(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들에 의존한다. 그러한 變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個別農家の 富(wealth), 交易條件, 資本裝備率 및 低所得 地域에 差別的인 制度的·市場的인 機構(institutional and market mechanisms)들이다. 이러한 變數들이 農家所得에의 영향력은 資料의 不足과 說明變數 計量化의 곤란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

2) 模型에 포함된 各 說明變數들의 回歸係數들은 理論的으로 가져야 할 符號를 가지고 있다. 즉 農家所得은 經營耕地面積, 農外所得率, 比較優位作物化率 및 經營主의 能力과 正(+)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回歸係數들의 統計學的 安定性은 t 값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지 않다.

3) 經營耕地面積만 1坪 增加할 때 農家所得은 서귀포 지역 농가에서는 약 2,760원, 제주 지역에서는 1,080원, 성산포 지역에서는 770원 그리고 한림 지역에서는 61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經營耕地面積의 回歸係數(B_{1j})들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經營耕地面積이 1 標準偏差(standard deviation)만큼 변할 때 農家所得이 몇 標準偏差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經營耕地面積의 標準回歸係數는 제주시가 0.51, 한림이 0.49, 서귀포가 0.44 그리고 성산포가 0.30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다른 變數의 標準回歸係數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農家所得의 증대에 나머지 3개 변수보다 經營耕地面積의 擴大가 가장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農外所得率만의 1% 증가가 農家所得에 몇 천원의 향상을 가져 올 것인가를 나타내는 回歸係數는 성산포, 한림, 제주시 순으로 높고 서귀포 지역 농가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變數의 標準回歸係數는 성산포 지역 농가에 있어서 0.66, 한림 지역이 0.53 그리고 제주시 지역이 0.47로 나타났으며, 서귀포 지역은 0.09로 현저히 낮았다. 특히 성산포 지역과 한림지역의 경우는 다른 變數들의 標準回歸係數보다 農外所得率의 그것이 더 높았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經營耕地面積의 표준회귀계수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무시할 정도이다. 이 점은 低所得 地域인 성산포, 한림 및 제주시 지역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간 농가소득의 隔差를 완화하는 데 農外所得率의 提高가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임을 말해 준다.

5) 比較優位作物化率의 1% 증가는 서귀포 지역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268천원, 제주시 지역의 경우 36천원, 그리고 성산포와 한림의 경우는 각각 30천원과 24천원의 농가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변수의 標準回歸係數는 다른 變數의 그것에 비해서

귀포 지역만 제1위이고 나머지의 지역에서는 모두 제3위로 나타남으로써 제주도의 地域間 農家所得 隔差를 조성해 온 결정적인 변수임을 말해 준다.

6) 經營主 能力的 변화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성산포 지역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주시, 서귀포, 한림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 變數의 標準回歸係數는 모든 地域에서 다른 變數의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地域間 農家所得隔差의 완화에 다른 변수보다 덜 寄與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는 高所得 農村地域보다 低所得 農村地域의 農家所得 增大에 가장 寄與的인 變數는 農外所得率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農外所得率의 回歸係數나 標準回歸係數가 高所得 農村地域이라 할 수 있는 西歸浦 지역보다 低所得 農村地域이라 할 수 있는 제주시, 한림 및 성산포 지역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農外所得率의 변화는 모든 低所得 農村地域에서 다른 變數보다 상대적으로 農家所得增大에 더 寄與的이라는 점도 그 이유가 된다.

農外所得率 다음으로 低所得 地域의 農家所得 增大에 寄與的인 變數는 經營耕地面積이다. 低所得 地域에서 經營耕地面積의 標準回歸係數는 農外所得率의 그것에 비해 약간 낮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低所得 地域에 있어서 나머지 두 變數의 標準回歸係數를 보면 比較優位作目化率의 경우가 經營主 能力的 경우보다 더 크다.

따라서 低所得 地域의 農家所得을 증대시킴으로써 제주도 農家所得 分布의 不均衡을 완화하기 위한 政策을 형성하려면 農外所得率의 提高를 제1의 政策課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耕地面積의 擴大, 比較優位作目化率의 提高 그리고 마지막으로 經營主 能力的 向上을 政策課題로 삼아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結果와 그로부터 유도된 結論은 資料利用의 制約과 分析方法의 單純化로 限定的인 意味를 갖는다. 分析模型은 線型回歸方程式으로 表現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規模의 一定性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分析模型은 자료의 不足과 變數의 計量化 困難으로 農家所得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農家の 富, 交易條件, 자본장비율 및 여러가지 社會·政治的 要因과 制度的 要因들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排除된 變數들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分析模型을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結果는 좀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관한 연구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별도의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V. 要約과 結論

그동안 우리社會의 産業社會化 過程은 濟州道 農家の 資源配分과 農業生産 構造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옴으로써 濟州도의 農家所得은 크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86년 현재 濟州도의 平均 農家所得은 7,116천원으로 全國平均보다 48.6% 더 많았다. 이러한 濟州도 農家の 상대적인 高所得은 農業生産의 專門化와 商業化 정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地域보다 현저히 높고 현재로서는 農外所得의 機會도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濟州도 農家の 所得不均衡度는 우리나라의 다른 地域에 비해 훨씬 심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調查資料의 分析結果로 본 濟州도 農家所得 分布에 대한 「지니」 集中率은 0.4588로서 '85년 全國 農村에 대한 「지니」 集中率인 0.3199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濟州도 農家所得 分布의 不均衡은 經營耕地의 規模에 따른 農家階層間的 所得隔差와 地域間 平均 農家所得의 隔差에 기인한 것이다. 濟州도의 零細農層 農家所得이 '86년 현재 中農層의 48.0% 수준으로 全國平均인 54.0%나 日本의 95.4%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서귀포 地域의 平均 農家所得이 濟州도 平均 農家所得의 1.93倍 水準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實證한다. 특히, 濟州도 最下位 40% 農家所得階層의 93.4%가 濟주시, 한림 및 성산포 지역에 분포되고 있는 반면 最上位 20% 農家所得階層의 약 70%가 서귀포 지역에 分布한 것으로 分析됨으로써 濟州도 農家所得 分布의 不均衡은 地域的 要因이 강력히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地域的 要因이 農家所得의 地域間 隔差를 가져오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本 研究에서는 標本調查資料로 얻을 수 있었던 經營耕地面積, 農外所得率, 比較優位作物化率 및 經營主의 能力 등 農家所得決定要因들의 農家所得 變化에의 影響력을 多重線型回歸分析模型에 의해 各 地域別로 分析하였다. 그 結果, 高所得 地域인 서귀포 지역에서는 比較優位作物化率이 農家所得 變化에 가장 강력한 要因으로 나타남으로써 서귀포 지역을 中心으로 甘藷, 시설원에 등 高所得作物의 專門·商業的인 生産擴大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濟州도 農家所得 分布의 不均衡을 심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低所得 地域인 濟주시, 한림 및 성산포 지역에서는 比較優位作物化率보다 農外所得率이 農家所得의 變化에 더 강력한 影響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低所得 農村地域의 農家들이 農外所得率을 높이는 政策이 濟州도의 地域間 農家所得 隔差를 완화하는 데 가장 效果的이라고 판단하였다.